

전남도,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100일 플랜 돌입

솔라시도 중심 산업시설·RE100산단 갖춘 10만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목표

전라남도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 일원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계·규제·전기요금·정주여건 등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 신도시 구상을 밝혔다.



김영록전남도지사가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무장 및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100일 플랜 kick-of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가 구상하는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 규모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정주 배후도시를 한데 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특화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산업시설 지구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기반으로 대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 최대 자선운용사 블랙록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하기로 한 만큼 전남도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수조원 규모 투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 입주에 대비해 한국에너지공단, 목포대, 순천대가 참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는 서남해안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분산된 발전설비를 집적화하고, 안정적인 송전을 위한 전력망과 변전소를 구축한다. 추진가능한 태양광 단지부터 신속하게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에 공공개발 시 전력계통 우선 배정을 건의해 에너지

자립마을 건설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배후정주지구에는 근로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국제학교, 병원, 호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정주공간을 마련한다. 인구 10만 명과 첨단산업 수요를 고려해 전기·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구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전남연구원·녹색에너지연구원·전남개발공사·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매주 전략

회의를 진행한다.

하반기 정부의 RE100 특별법 제정에 맞춰 RE100 산단 지정에 추진하고, 2026년 초 지방 신도시 지정에 앞서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와 광활한 개발부지를 보유한 솔라시도는 '에너지 미래도시'의 최적지"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청년들, 26~27일 청년축제 연다

청춘빛포차광장 일원... 청년토크·디스코파타·강연 등 다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청년의 날'(9월20일)을 맞아 오는 26~27일 이틀간 청춘빛포차광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년축제를 연다.

'광주 청년의 날'은 9월 셋째주 토요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한 '세계청년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청년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공연, 문화체험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청년주간 주제는 '우리의 목소리, 지금 업로드 중'으로,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2025 광주청년주간' 주요 프로그램은 ▲이슬아 작가와 함께하는 북크북 북엔톡 ▲강윤성 감독과 함께하는 씬(scene)나눔 청년토크 ▲사일런트 디스코 파티(K-POP ScreaM) ▲청년강연대회인 영보이스(Young Voice) ▲슈퍼명창가요제 등이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린 만큼 큰 무대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이슬아 작가의 북엔톡과 연계한 '독립서점 플리마켓'과 광주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광주청년 정책부스', 광주 공공 외교단과 연계한 '세계국가 홍보체험 부스' 등을 운영한다. 또 청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빛포차 오락실', '편칭 스탬프 투어'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현장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5 광주청년주간 행사 상세 프로그램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www)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광주청년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행사에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광주시, 서울서 스타트업 투자유치 설명회

수도권 벤처캐피털 40여곳 초청... 전국 투자 네트워크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서울 강남구 디캡트 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 운영 시설)에서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을 초청해 '광주 스타트업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창업·벤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자본을 유치해 혁신 성장을 돕고,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G-유니콘 육성 기업, 광주시 출자 인공지능(AI) 1차 펀드 투자기업, 창업 유관기관 추천 기업 등 12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수도권 벤처캐피털(VC)과 광주시 5000억 펀드 운용사 등 40여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IR 피칭)를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벤처캐피털(VC)과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국거래소(KRX)와 연계한 상장 설명회를 열어 증권시장 동향과 상장제도 안내, 기업가치 제고 전략 등을 공유하며

참가기업들의 투자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를 지원하는 창업성장사다리 펀드와 산업분야별 펀드 등을 포함해 총 6192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운용 중이다. 앞으로도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투자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주제회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지역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광주의 우수 초기창업기업이 전국과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인 기자

전남 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할인 기획전·수도권 직거래장터·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도권에서는 전남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추석 명절 건강한 선물과 가족 밥상 차림을 공략할 계획이다.

24~26일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서울 서로장터', 26~28일 서울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 등에서 '전남 수산물 직거래장터 큰잔치'가 열리며, 완도전복·영광굴비·곱창김 등 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고품질의

전남 수산물을 중간 유통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간 전남 13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의 2개 전통시장(신안, 함평)에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 행사를 추가 진행한다.

또한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추석 명절의 주요 성수품과 참돔, 낙지 등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을 대상으로 전남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공평거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로 위축된 국민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수산물 할인 기획전,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가격하락으로 힘든 전복양식 어가에 힘을 보태고자 11억 원을 지원,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 기획전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이마트, GS 더프레쉬, 남도장터 소핑몰(20% 할인쿠폰 지급) 등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남 지역 대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HD현대삼호 노사, 2025년 임금교섭 타결

기본급 13만 5,000원 인상... 잠정합의안 찬성 58.1%로 가결

찬성 58.1%(1,039명), 반대 41.1%(736명), 무효 0.8%(14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 5,000원(호

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 원 지급(상품권 20만 원 포함) ▲특별 인센티브(약정임금 100%)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 원 출연 등의 조항이 담겼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노사 간 신뢰와 배려로 올해 임금교섭이 원만히 합의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 노사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연내에 타결했다.

영양/김희선 기자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 노사가 올해 추석 명절 전 임금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HD현대삼호는 25일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8.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018명 중 1,789명이 투표에 참여해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